

원불교 사상의 사회적 성격과 그 실천

이 성 전

(원광대학교)

《요약》

원불교는 1916년에 창립되어 교화활동을 시작한지 현재 84년으로 종교의 역사로는 지극히 짧은 기간이다. 교조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이루고 당시 사회와 문명의 상태를 진단하여 건전한 문명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 하에 원불교를 개창하였다. 그는 파란고해(波蘭苦海)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을 개교의 동기로 선포하고 사업의 목표를 교화, 교육, 자선으로 정하여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원불교가 창립 초기부터 사회 현상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교화활동을 전개해 온 것은 이러한 교조정신에 바탕한 것이다.

오늘의 원불교는 교단 조직의 합리화에 성공하고 비교적 건전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교단사의 발자취를 형성해온 것은 아니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원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볼 때 원불교 교단은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교단 내적으로는 교리의 체계화나 조직의 합리화를 넘어서 문화창조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대외적으로는 교화역량을 심화시켜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불교의 사회사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이러한 사상들이 짧은 역사 속에서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전개되어 왔는지를 시대순으로 정리해보고 오늘날 새롭게 요청되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I. 이끄는 말

원불교의 창립은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 대종사(大宗師)의

대각을 기점으로 삼는다. 오랜 구도의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소태산은 당시의 사회와 문명의 상태를 진단하고 건전한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원불교를 창건하였다. 이에 원불교는 창립 초기부터 사회현상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교화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늘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단을 창립하고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그 관심이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교단사의 발자취를 형성해 온 것은 아니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오늘의 원불교는 교단조직의 합리화에 성공하고 비교적 건전한 사회활동을 전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교단 내적으로는 교리의 체계화나 조직의 합리화를 넘어서 문화창조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대외적으로는 교화역량을 심화시켜 현대사회가 직면한 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원불교의 사회활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시도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원불교의 통상적 교화활동이나 교단조직을 유지, 발전시킨 것도 사회적 의미를 지니겠지만 여기서는 원불교의 활동이 사회에 미친 객관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창립 후 지금까지의 활동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했다. 첫째 단계는 원불교 창립부터 해방 이전으로서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통치시대에 해당한다. 이 때는 민족해방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된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로서 건국과 근대적 사회질서의 기반 확립이 사회적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1970년대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로서 민주화운동이 사회적 관심사였다. 마지막은 90년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로서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된 후 통일과 사회복지, 국제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단계의 구별이나 사회적 과제에 관한 견해는 필자가 고찰의 편의상 구별한 것이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원불교의 사회활동은 어떤 교리적 근거 하에 무엇을 지향하고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교리적 근거를 검토하고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성격을 정리하기로 한다. 이 부분은 이론적 바탕을 점검하는 것에 해당되는 셈이다.

II. 원불교의 사회 사상

1. 일원의 진리와 사회

소태산은 궁극적 진리를 일원상(○)으로 상징하고 ‘우주 만유(宇宙 萬有)의 본원(本源)이요, 제불제성(諸佛諸聖)의 심인(心印)인 법신불(法身佛)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¹⁾으로 한다고 말한다. 일원상의 진리는 종교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넘어서 관조에 의한 깨달음의 대상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인류의 궁극목표라는 의미이다.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心體)를 나타낸 것이며……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입정처(入定處)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自然) 혹은 도(道)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淸淨法身佛)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²⁾

일원상의 진리는 불가의 청정법신불, 유가의 태극 혹은 무극, 선가의 자연 혹은 도에 상통한다고 봄으로써 그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최후 구경에 서로 상통하는 진리의 상징임을 말한다. 그런데 일원상의 진리와 현상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본체와 현상의 상즉성(相卽性), 곧 일원의 진리가 현상 만유에 내재한다는 범신론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원의 변화 또는 발현이 곧 우주라는 것이다.³⁾

현상에서 보면 일원상의 진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四恩)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 존재의 상호관계에서 생각할 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은혜의 관계에 있다. 일원의 진리는 동시에 인간에 내재하여 본래 마음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즉 인간의 심성이 이에 근원한 것이다. 이에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1) 『正典』 제 1편 2장 교법의 총설, (『圓佛教全書』, 圓佛教正化社, 1977, 21~22쪽)

2) 『大宗經』 교의품 3장, (『圓佛教全書』, 112쪽).

3) 朴吉眞, 「一圓相研究」, (『一圓相眞理의 諸研究』, 圓佛教思想研究員編, 圓光大學敎出版局, 1989. 15쪽).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⁴⁾

라고 말한다. 궁극적 진리의 상징인 일원상은 현상에서 볼 때 사은이며 천지만물 허공법계(虛空法界), 그 자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대로 일원상의 진리, 곧 청정법신(淸淨法身)의 화신(化身)이라고 할 수 있다. 만유를 현상적 존재의 관계에서 보면 사은이며 체성(體性)에서 볼 때 일원상의 진리라 이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사회는 사은의 상호관계를 통해 생성되고 유지된다고 파악되며 궁극적으로는 일원의 진리가 펼쳐지는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하여 현실 문명을 일구어내는 것은 곧 진리 실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명적 은혜가 실현되는 사회로 이끌어 감을 의미한다.

2. 이상사회의 성격

1)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소태산은 당시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견해를 지녔다. 이에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⁵⁾라고 말한다. 참으로 문명한 세계란 정신문명과 균형이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한다. 정신문명은 도학문명(道學文明), 도학이라는 이름으로 대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道學)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⁶⁾

이상의 언급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물질문명에 치우치면 오히려 인

4) 『大宗經』 교의품 4장, (『圓佛教全書』, 113쪽).

5) 위의 책, 전망품 19장 (『圓佛教全書』, 391쪽).

6) 위의 책, 교의품 31장 (『圓佛教全書』, 131쪽).

간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둘째 그러나 정신문명만 발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문명일 수 없으며 과학문명도 매우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는 과학문명이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주는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줄을 의미한다. 즉 육신의 생활이 미개한 것은 이상적인 삶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신문명의 발전으로 영적인 진화를 이루고 과학의 발달로 육신생활의 향상을 이루는 것이 균형 있게 될 때 완전한 문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도학과 과학이 병진한 참 문명 세계⁷⁾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현대는 정신문명의 발달에 힘써야 하는 시기다. 사람들은 대개 나타난 물질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 없는 도덕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은 것이 문제로서 소태산은 이 점이 현대문명에서 느껴지는 큰 유감이라고 한다.⁸⁾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현상이다. 소태산은 이러한 점에서 현대를 병든 사회로 규정한다.⁹⁾ 현대인이 과거보다 크게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주된 이유이다. 참 문명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문명의 발달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신문명이 발달해야 한다. 소태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개교의 표어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¹⁰⁾

물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며 사람의 활용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으로 사람이 선용하여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정신문명 즉 도학문명은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¹¹⁾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물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된다.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인간을 구속하는 굴레가 된다. 소태산은 용심법(用心法)을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7) 위의 책, 서품 8장 (『圓佛敎全書』, 97쪽)

8) 위의 책, 교의품 32장 (『圓佛敎全書』, 132쪽).

9) 위의 책, 교의품 34장 (『圓佛敎全書』, 133쪽)

10) 위의 책, 서품 4장 (『圓佛敎全書』, 95쪽).

11) 위의 책, 교의품 32장 (『圓佛敎全書』, 132쪽).

자리이타(自利利他)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됨으로서 물심 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하라고 강조한다.¹²⁾ 마음 사용하는 법을 공부하여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¹³⁾하라는 것이다.

소태산은 과학문명에 대해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중요한 보조도구로 보면서 과학문명을 선용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과학문명은 인간을 도와서 평화 안락한 세계를 이루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의 분야로서 소태산은 교화, 교육, 자선의 세 가지¹⁴⁾를 제시하였다.

2) 삼동윤리 실현과 하나의 세계

소태산이 제시한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길로서 그의 후계자인 정산종사(鼎山宗師) 송규(宋奎, 1900~1962)는 삼동윤리(三同倫理)를 제시하였다. 정산은 미래를 세계 일가가 실현되는 사회로 전망한다. 그는 ‘앞으로는 종족이나 씨족의 구별을 특히 따지지 아니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한집안 자손으로 지내리라.’¹⁵⁾고 말한다.

정산은 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종교와 생명과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원도리(同源道理), 동기연계(同氣連契), 동척사업(同拓事業)의 삼동윤리¹⁶⁾로 발표한다. 그는 스스로 삼동윤리는 곧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大同)의 관계를 밝힌 원리라고 정의하고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¹⁷⁾이라고 한다.

동원도리는 종교의 미래 진로를 밝힌 것¹⁸⁾이라고 이해된다. 정산은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12) 위의 책, 교의품 30장 (『圓佛教全書』, 130쪽).

13) 위의 책, 교의품 29장 (『圓佛教全書』, 129쪽).

14) 위의 책, 부속품 15장 (『圓佛教全書』, 407쪽).

15) 『鼎山宗師法語』, 유축편 30장 (『圓佛教全書』, 1013쪽).

16) 1962년 4월에 정산은 최후법문으로서 삼동윤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의 전법계송(傳法偈頌)이 되었다.

17) 『鼎山宗師法語』, 도운편 34장 (『圓佛教全書』, 988쪽).

18) 宋天恩, 『종교와 원불교』,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9, 익산, 552쪽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¹⁹⁾ 미래의 열린 시대에 종교가 나아갈 방향은 화합이라고 정산은 생각한다. 이는 종교가 주장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정산이 말하는 하나의 근원이란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령(生靈)을 이롭게’ 하려는 데에서는 서로 같으며 이러한 희망을 공유하는 인간의 근원적 심성이 같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리가 같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인 동기연계이다. 모든 인류와 우주의 전 생령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다. 인류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므로 크게 화합하는 때에 인류를 평등으로 통일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²⁰⁾

금수초목까지도 한 기운으로 연결된 한 동포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인류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이 세상을 개척하는 힘이 된다는 데에 이른다. 정산은 이를 동척사업이라고 말한다. 동척사업은 인류의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인류가 하는 일의 목적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자는 데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마침내 중정(中正)의 길로 귀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²¹⁾

III. 사회적 실천의 역사적 흐름

1. 일제 식민지 시대

원불교의 사회적 활동이 어떻게 실현되어왔고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19) 『鼎山宗師法語』, 도운편 35장 (『圓佛教全書』, 989쪽).

20) 위의 책, 도운편 36장 (『圓佛教全書』, 990쪽).

21) 위의 책, 도운편 37장 (『圓佛教全書』, 991쪽).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 시대, 해방후~1960년대, 1970~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소태산의 구도와 대각, 교화는 시기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졌다. 소태산은 과학문명의 발달에 정신문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초래된 문명의 부조화와 식민지 민중의 억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순과 아픔의 시대 상황을 직관하였다.²²⁾ 민족의 아픔과 지배와 착취의 어두움을 공감하는 입장에서 차근차근 극복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해간다. 이 시기의 사회활동을 김홍철 교수는 가난극복 운동과 의식 계몽과 독립운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²³⁾ 이 견해에 유념하면서 소태산이 이 시기에 민중과 더불어 이루고자한 노력을 차별제도의 철폐, 공익정신으로 일깨우려는 의식계몽, 민족의식의 고양 등으로 집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차별제도의 철폐이다. 소태산은 당시의 제도적 모순과 잘못된 사회적 관습의 원인이 되는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사회의 개혁은 시작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남녀, 반상, 적서, 노소, 종족의 차별을 벗어나서 인권의 평등, 교육의 평등, 지식의 평등, 생활의 평등이 구현된 균등 세계를 이루는 것을 사회적 과제로 제시한다.²⁴⁾ 특히 한국 여성의 일생은 의뢰생활의 연속일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의 굴레 속에 있었다. 부모, 남편, 자녀에게 의지하여야 했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재산에 대한 상속이 있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아예 전혀 고려되지 못하며 일동일정에 구속을 받는²⁵⁾ 구조적 의뢰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의미를 지닌 '남녀권리동일'²⁶⁾의 선포는 의뢰 생활을 종결하고 자신의 삶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력적이며 자유로운 삶으로 전환시키자는

22) 「원불교 교사」, 원불교 정화사편, 이리, 원불교중앙총부, 1975, 17-18쪽.

23) 김홍철, 「일제침략하 원불교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圓佛敎思想』 7輯, 원광대학교출판국, 1983 참조).

24) 「正典」, 제 2편 3장 四要, (『圓佛敎全書』, 39~46쪽 참조).

25) 위의 책, 四要 (『圓佛敎全書』, 40쪽).

26) 현재 四要의 하나인 자력양성은 초기교서인 「육대요령」에서 “남녀권리동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은 오늘날의 남녀평등 사상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오늘날의 남녀평등은 여권신장을 통한 남녀의 차별현상을 극복하자는 것인데 비해, “남녀권리동일”은 여자도 인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자는 데에 역점이 있다.

목표를 지향하였다. 소태산은 이러한 정신 하에 교단 운영에서도 당시로는 파격적인 남녀평등의 입장을 실천하고 여성 제자들을 이에 적응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갔다.²⁷⁾

소태산은 차별적 제도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약자들의 고통을 이기는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으로서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변의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민중들을 일깨우고 이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난극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차별과 억압, 민족 수난의 극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자력이 없음'에 있다고 생각한 소태산은 민중에게 만연된 의뢰생활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당시의 상황 가운데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에 의지하는 폐풍과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고²⁸⁾ 의뢰심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자력 있는 사람이 의뢰를 구할 때에는 받아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 까닭 없는 의뢰생활을 일소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자력을 갖게 하고 힘 미치는 대로 어찌할 수 없는 무자력한 사람에게서는 도움을 주도록 가르침으로써 민중의 저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였다.

소태산의 이러한 변혁 운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은 가장 쉽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나갔다. 작은 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운동 즉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원칙은 모든 활동과 사업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초기 교단사에서의 보이는 영산 간척사업이나 변산의 주경야독의 제법과 훈련, 익산 총부 건설 등의 활동이 바로 이것이다.

다음은 공익정신의 함양이다. 소태산은 교화 개념을 공사(公事)라는 인상적 표현을 통해 표현하기도 하였다. 공이란 공익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의미로 설명된다. 그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아를 벗어나서 민족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기르도록 하는 의식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형식과 외식(外飾)에 얽매어서 허례허식에 떨어진 예법을 개혁하는 데서

27) 대표적인 예로 제도적으로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의 수를 남녀 각각 9인으로 정하고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의 선거,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부여한 점이나, 소태산 재세 당시의 훈련에서 아직 인식이 충분치 못한 여성제자들을 대중의 앞에 격식을 갖추어 설교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여성교역자로 양성한 점 등은 대표적 사례이다.

28) 「正典」, 四要 (「圓佛敎全書」, 39~40쪽).

시작하였다. 예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당시 예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과감한 혁신을 단행한다. 형식에 집착함을 벗어나야 실질적이고 참된 의미의 공사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의지는 당시의 사회를 병든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뜻을 지닌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란 가르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지도력의 부족과 사회의 부패와 민중의 아픔을 통렬하게 느끼고 그 치료법을 제시한다.²⁹⁾ 그 병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를 공익심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강조한 정신이 공익정신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족의식 고양을 들 수 있다. 당시 민중은 소외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였다. 소태산은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밝히고 “자리이타법(自利利他法)을 쓰지 못하고 약육강식을 하며 약자는 강자를 미워만 하다가 강자와 약자는 원수가 되며 혹은 생명을 희생하며 더욱 심하면 세세생생 끊어짐이 없는 죄를 지어 고를 받는다.”³⁰⁾고 말한다. 이어 강자가 강자의 도를 지키지 못하면 약자가 될 수 있고,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기만 하면 강자로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³¹⁾ 함께 진화해 가는 자리이타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조선과의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를 직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열강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세계사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소태산은 강자로서 강을 남용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약자가 변해서 강자가 되는 길을 일깨우고 실행해간다. 당시 조선일보에 “불법연구회에서 문자보급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자.

〈이리〉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에 있는 불법연구회에서는 종래부터 통학 불능하는 무산 아동의 교양을 목적하고 주야학(晝夜學)을 경영하여 이래 우수한 성적을 내어오든바 금년 겨울 농한기에는 현재 야학 아동 70여명을 200명으로 대 증가를 시켜 문맹에서 해매이는 일반 아동을 적극적으로 교양하리라는 데 벌써부터 참가자

29) 류병덕, 「원불교의 사회관」, (『圓佛敎思想』 제10집,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7, 123쪽).

30) 「원불교 교고총간」 제1권, 원불교정화사, 1968, 12-13쪽.

31) 「정전」, 제13장 3. 强者·弱者의 進化上 要法 (『圓佛敎全書』, 85~86쪽).

는 답지한다 하며, -하략-³²⁾

이처럼 민중들에게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고, 경전 및 간행물 발간에 있어 서도 모두 한글을사용하였던 점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약한 민중을 깨우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소태산은 한국이 장차 세계사에서 정신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등 민족적 자존감을 확립하고 민족문화의 탁월함을 널리 선포하려고 노력하였다.

2. 해방 후~1960년대

소태산의 열반으로 정산(宋奎 1900~1962)이 그의 종통(宗統)을 이었으나 광복 후의 혼란과 6.25의 수난으로 이어지는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원불교는 건국사업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모색에 적극 동참하려고 노력하였다. 해방 후 좌우 대립의 정국을 관망한 정산은 국가 건설의 경륜을 『건국론(建國論)』으로 집필하여 각계 정치지도자에게 보내고 참다운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촉구한다. 전재동포구호사업·고아원 등 복지시설의 설립·문맹퇴치 운동 등으로 전개된 사회활동, 의례준칙을 통한 의식계몽,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회활동이었다.

전재동포구호사업은 8.15 해방 후 외국에서 귀환하는 동포들을 맞이하는 사업이었다. 1945년 9월익산 역전과 서울 역전에 '귀환 전재동포구호소'를 설치하여 이리에서는 13개월 반 동안, 서울에서 6개월 반 동안, 전주에서 5개월 동안, 부산에서는 3개월 반 동안 조국으로 돌아온 전재동포들에게 식사와 의복 공급, 숙소 안내, 응급 치료와 분만 보조, 사망자 장례 등의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에 구호받은 전재동포 연인원이 80여만 명에 이르렀고, 많은 교역자들과 20여개 교당의 교도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귀환 학도병을 상대로 사상강연회를 열었고, 국민을 상대로 계몽운동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 각계로부터 높이 평가되었다.

전재동포구호사업이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생활의 정착을 돕는 실천

32) 조선일보, 1937년 10월 26일자.

적 운동이었다면, 정산의 『건국론』은 해방 직후 전국치민(建國治民)의 방법론을 당시의 정계 요인들과 교단 동지들에게 널리 호소하며 제시한 경륜이었다.

『건국론』에서는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써 줄기를 삼고, 국방·건설·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써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라고 그 요지를 밝히고,³³⁾ 중도주의(中道主義)·정신주의(精神主義)·훈련주의(訓練主義)를 기본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이 『건국론』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고 임시정부 김구(金九) 주석 등의 열렬한 공감을 얻었다.³⁴⁾

정산은 『건국론』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 각자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자는 것이요, 둘째 외부의 혁명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혁명을 하자는 것이며, 셋째 공익기관이 불어나서 점차 국민생활이 골라지게 하자는 것이요, 넷째 관영과 민영의 사업에 차별이 없이 서로 협력을 하자는 것이요, 다섯째 공도자(公道者)를 숭배하고 대우하여 공사간(公私間) 진화의 도를 얻게 하자는 것이다.³⁵⁾ 여기에는 근대적인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기본정신이 대체로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사회의 평등,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개념, 시민윤리인 공익정신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마음 계발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성찰이 표현되어 있음은 그 특징적인 일면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의례준칙의 개정, 즉 『예전(禮典)』의 발간에서 나타나는 의식계몽의 노력도 사회 개혁 운동으로 특기할 만하다. 예전의 편찬 발행은 1935년(원기 20)에 이루어졌다. 그 후 1968년(원기 53)에 수정, 보완을 거쳐 다시 발행되었다.

예법제정의 근본정신은 과거의 예법과 상통하나 그 내용과 형식, 활용성의 측면에서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역점을 둔 것이 주된 특징이었다. ³⁶⁾ 『예전』은

33) 宋鼎山, 『건국론』, 제1장 제언, 원불교출판사, 1981, 11~12쪽.

34) 김정관, 「8.15광복과 건국사업」,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237쪽).

35) 「정산종사법어」, 국운편 14장 (『圓佛敎全書』, 788쪽).

36) 김성택, 「예법혁신과 새 생활운동」, (『원불교칠십년정신사』, 190쪽).

사회 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예의 규범으로 정한 통례편, 가정 생활에 있어서 출생으로부터 성년·결혼·회갑·상장(喪葬)·제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일생의 예법을 규정한 가례편, 원불교 교단에서 각종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규범을 정한 교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례의 본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근본 정신은 더욱 드러내고 형식은 간소화하였고, 둘째는 절약한 비용을 사회공익 사업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공익 정신을 선양하고 인연 작복을 잘 하게 한 것이고, 셋째는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의 정신으로 보은, 불공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³⁷⁾

이러한 원불교 의례준칙의 편찬·발간은 미신과 허례허식에 물든 폐단을 개혁하고, 생활 속에서 도덕 정신을 발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개혁 운동으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간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종교간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1965년(원기50) 4월 원불교 총부 서울사무소에서는 월간 『종교계』(발행인 이운권(1914~1991), 주간 이은석(1925~1982))를 창간하여 이러한 운동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당시의 종법사인 대산(大山, 金大舉(1914~1998))은 이 잡지의 발행을 기념하는 글에서

정치도 UN기구가 있으니 앞으로 종교계에도 UN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동양에서 추진해야 하며 그것도 한국에서 발기를 하여야 한다.³⁸⁾

라고 말한 바 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그해 6월 한국 6대 종교인의 대화를 개최하고 원불교 교단은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종교인협의회가 결성되고 종협사무소를 원불교 서울사무소 내에 둠으로써 종협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³⁹⁾ 『종교계』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원불교의 이념과 위치를 크게 천명하는 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출발하였다. 무엇

37) 김성장, 「원불교 의례의 성격」,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1227쪽).

38) 이운권, 「고산종사문집Ⅲ」, 원불교출판사, 1992, 192쪽.

39) 「원불교교사」, 원불교정화사 편, 1975, 161쪽.

보다도 ‘종교인과 종교 이론의 공동광장’을 열어서 성자혼을 실현하고 올 없는 광장에서 서로 만나고 협력하여 종교 본연의 목적에 돌아가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40) 창간호 권두언에서 발행인 이운권은 그 정신을 이렇게 밝혔다.

본지는 이미 세계 모든 종교인의 것이요, 전 세계 인류의 것이요, 모든 종교인이 같이 마련한 진리의 터전임에 같이 가꾸고 같이 성장케 하여 보람된 열매를 맺도록 그옥한 마음을 부어야겠다. 41)

각 종교지도자들은 원불교의 『종교계』 창간에 대해 크게 환영하였다. 이러한 제종교의 요청과 원불교 교단의 대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욕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통권 7호로 휴간된 것은 크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1970~1980년대

한국의 민중은 민족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왔는데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절정에 달했다. 소외되어왔던 절대 다수의 민중은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아감으로써 민주 시민의 권리를 꾸준히 확보해 갔다. 종교계도 이러한 시대 과제에 부딪혀 시민 연대 운동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원불교의 사회적 활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음이 자체 평가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에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시대적 과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교화를 정체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정도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교단 내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자각이 일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예비교역자 수학과정인 원불교학과 내에서 ‘사회교화연구반’이라는 진보적인 학생 조직이 결성되었고, 젊은 교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교무단’이 출범되어 이에 동참하였다. ‘1989학년도 사회교화연구반 정기총회 결의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0) 이운철, 「출판언론사」, (『원불교칠십년정신사』, 1989, 560쪽).

41) 이운권, 「고산종사문집Ⅲ」, 270쪽.

1. 우리 교단이 자주, 민주, 통일의 새 날을 여는 역사에 동참하도록 선봉대적 역할을 다하자.
2. 우리 교단의 민족민주적 변혁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3. 우리 자신의 새롭게 거듭나는 주체 혁신과 쉬임 없는 투쟁 속에서 교단의 민족민주적 변혁과 자주, 민주, 통일의 새 날은 보장된다. 42)

이후 원불교학과 학생들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사회개혁 교무단 또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서 원불교 교의에 입각하여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전망해야 할 것인지, 교리 해석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인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규정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모색하려 했던 진보적인 움직임이었다. 이에 대하여 교단적 평가가 다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⁴³⁾ 위와 같이 당시 민중의 열망을 담아 내고,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일련의 시도는 사회 사상의 실천적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소외계층을 위한 교화 복지 활동,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가속화 시켰다.

4. 1990년대 ~현재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미 해결된 문제도 밀려있는 채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분출되는 상황이다. 민족통일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 여성, 노동, 빈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새로운 세계관의 모색이라든지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청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원불교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42) 『원불교 운동의 인식과 실천Ⅱ』, 금강의 주인 편저, 원불교출판사, 1991, 240쪽.

43) 위의 책, 3쪽.

자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전통이 아직도 유지된 채 교화·교육·자선 등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진 것이 주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해외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이에 맞추어 교단조직의 재정비를 도모한다거나 방송국 설립 등을 통해 문화교화의 영역을 넓히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활동으로서 두드러진 것들은 복지분야의 활동, 청소년 문화 형성에의 기여, 종교간의 협력에의 동참, 민족화합과 통일에 대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사회 활동들은 봉사와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며 정착해가고 있다. 교법의 사회적 실천을 목표로 은혜심기 운동본부를 두고 교정원 공익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법인 삼동회를 비롯 6개의 복지법인과 30여개소의 이용 및 수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청소년문화에 민족문화를 접목시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새 장을 연 것은 특기할 만 하다. ‘어린이 민속 큰 잔치’, 청소년 훈련 등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 및 전통 문화를 보급하고 자연과의 친화감을 높이도록 하는 가운데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는 ‘삼동 청소년회’를 중심으로 각 교당의 연계 하에 진행되고 있다.

삼동청소년회는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정신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이 맑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 문화체육부에 정식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올바른 품성과 인생관을 확립하는 정신교육과 훈련으로 나라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 후계자 양성에 그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삼동청소년회에서는 전국적인 조직(전국 11개 지구 15개 지회, 해외 3개)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청소년 동아리 “동그라미”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며,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완도와 부산, 그리고 전주에 두 개의 청소년 훈련원과 수련실을 설립하여 연 삼만 명의 청소년들을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이며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훈련해가고 있다. 또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국·내외에서 어린이민속큰잔치를 통하여 30여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 회복과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활동거리(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전개, 불우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선도, 청소년 예술제·농구제 개최, 청소년 회관의 설치·운영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힘을 다하고 있다.⁴⁴⁾

교육분야에서는 특히 기존의 제도권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한국 대안교육의 한 모델이 되었다.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위기 의식이 팽배해 지면서, 1995년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원불교는 이미 '영산성지고등학교'를 통해, 일반 학교의 부적응 학생을 성공적으로 재적응시키고 있었다. 대안학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1996년 12월에 기존 학교의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부적응 학생을 위한 소규모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모델로서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로 제시하였다⁴⁵⁾.

이를 통해 원불교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시설을 보완·확충하고, 합천의 '원경고등학교'와 경주의 '화랑고등학교'를 신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불교의 대안교육 운동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해결 방향의 모색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셋째, 종교간의 협력 운동에 적극 참여 활동하고 있다. 종교간 협력을 시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기도하여 종교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 1996년 U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NGO 종교분과에서 행한 기념식에서 좌산(左山 李廣淨 1936~) 종법사는 '서로 다른 종교들도 UR(United Religions)의 기치 아래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여, 이 세상을

44) 「삼동청소년회와 전국어린이민속큰잔치」, 삼동청소년회, 1996.

45) 「교육50년사」,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부, 1998, 438-439쪽.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온 인류에 희망을 심어주자.'는 요지의 연설로 종교간의 화해와 협력을 호소한 바 있다.

넷째, 민족 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1990년대 초 한국사회의 모순의 원초가 분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운동 지도자들은 통일운동에 깊이 관심을 두에 따라 사회개혁 교무단과 원불교 청년회 대학생 연합회 등에서 반핵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적극적 활동을 하게 된다. 1993년에는 타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를 창립하여 통일과 화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1994년 청년회 창립 30주년을 기해 개혁·통일·환경을 청년운동의 방향으로 정하고 '남북 한 삶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북한의 수재로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쌀 보내기·비료 보내기 등 정성껏 북한 돕기에 나서고 있다.

IV. 맺는 말

원불교는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을 개교의 동기로 선포한 소태산의 뜻에 따라 사업의 목표를 교화, 교육, 자선으로 정하고 그동안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여왔다. 이는 적극적으로 무아봉공(無我奉公)을 실천하려는 교역자들의 주도로 이끌어진 것이다. 창립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불교는 때로는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때로는 적극적이며 진보적인 입장에서 주어진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교단의 창립부터 해방전까지는 교단창립의 초창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민족의 당면과제는 민족의 해방이었으나 원불교는 독립운동에 참가한다거나 하는 등 직접적 활동은 전개하지 않았다. 일제의 탄압에 대처하며 교단을 창립하는 자체가 힘겨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의 자립정신을 계몽하고 민족적 자존의식을 고양시키며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참여 방향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사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왔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건국과 근대적 사회질서의 수립이 사회적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원불교는 교단조직을 정비하고 교화, 교육, 자선기관을 확장하는 등 내부적 정비를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하였다. 『건국론』을 집필하여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향에서 어려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교세였지만 합리적 교단운영과 참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할만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각계 각층의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원불교는 역량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주로 교단의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였다. 민주화 움직임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준비도 부족하였고 참여방식도 소극적이었다. 교화, 교육, 자선 등 통상적 활동은 이전보다 활발해졌으나 시대적 과제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던 시기였다. 일부의 젊은 층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교단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한 채 교단적 관심을 결집하지는 못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한 방향에서 분출되었다. 통일문제라든지 산업사회의 제 문제, 여성, 환경 등의 문제들이 이것이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원불교도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에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전통이 아직 불충분한 실정이다. 물론 통상적 교화활동이나 교육, 자선 등에서는 오랫동안의 노력이 탄력을 얻어 상당한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의 근본문제를 광범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대응하는 역량이 아직 기대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상을 유념하면서 원불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대 이후의 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고 복지사회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봉사의 내용 또한 차원을 달리해 나가야할 시점에 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가치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의미이다. 이는 물론 종교의 영원한 과제로서 오늘날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의 복지문제가 상당부분 사회보장을 통해 정비될수록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무한경쟁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인간의 풍요로운 영성(靈性)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구제해주며 풍요로운 근원적 생명력을 계발해내고, 영적 풍성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미래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는 ‘훈련’이라는 특별한 수양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의 근원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불교는 한국의 근대사에서 시대에 따른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여 더불어 살아간다는 기본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노력하였다. 이는 대체로 생활방식이나 예법 등에서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성향들은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으므로 구습을 탈피해야 한다는 근대 지향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이 전통적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한국의 고유신앙과 유·불·도 삼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를 균형 있게 재해석해 내며 서구의 사상들과도 무리 없이 접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원불교의 사상은 폭과 깊이를 지닌 새로운 발전된 사상으로 정착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사상적,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족적 토착화와 함께 세계적 보편종교로서 승화되어 인류 구원을 실현해나가도록 그 이론적 정립과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적 검토와 더불어 이에 근거하여 민족의 문화에 긍정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정산종사가 제시한 삼동윤리를 실천함에 있어 원불교는 그 동안 주로 동원도리의 실천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간의 회통에 역점을 두고 종교연합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 분야가 가장 원론적인 사상적 바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기연계나 동척사업의 분야도 균형 있는

관심을 두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기연계에 해당되는 분야중 두드러진 것으로서는 민족의 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여성문제에 대해서 원불교는 초기 교단사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쌓아왔으나 요즘은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민족통일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 역시 절실한 당면과제이나 아직 기대만큼의 역할은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척사업의 분야는 이념의 갈등이나 문화의 다양한 영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교와 과학의 조화, 종교와 정치의 협력에 관해서는 소태산이 그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해방 후 정산종사는 『건국론』을 통해 중도적 이념의 모색이라든가 종교와 정치,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관심이 역동적으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원론적인 명제를 강조하는데 치우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 분야가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